

▶ 가볼만한 곳... 전주 풍남문 맞은편 한옥 카페 '행원'

옛 전통예술학습장, 복합문화공간 되다

일제강점기 '낙원권번'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져 전통예술 지키면서 시대 상황 맞는 장르 개척 풍류의 중심지로 변성



풍남문 맞은편 골목길 모퉁이에 위치한 한옥 카페 '행원'의 내부.

전주 풍남문 맞은편 골목길을 따라 모퉁이를 돌면, 전통가옥의 예스러움이 느껴지는 한옥 카페 '행원' (대표 성준숙)이 자리하고 있다. 한갓진 운치가 느껴지는 이 카페는 역사가 길뿐더러 사연도 많은 장소. 이 건물은 1928년 전주국악원의 '낙원권번'으로 처음 지어졌다. 낙원권번은 우리전통음악과 춤 등 예술을 양산해 내던 곳. 전곡에 있는 각 권번들의 교육과정은 가·무·악으로 대개 비슷했으나 '낙원권번'은 전통예술 학습장이자 풍류객들의 모임터로 기능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전통적인 예술분야를 지키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예술장

르를 개척하는 등 스스로 문화적 근대화에 참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풍류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후 1942년 남전 허산옥(1926~1993)이 인수해 행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당시 남전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생계 자체가 어렵거나 피난을 온 내로라하는 당대의 예술인들을 행원에 불러들여 후원

하고 창작활동을 복돋았다. 이어 이곳은 판소리 명인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학봉 성준숙 명창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한정식 집으로 변모했다. '전주의 풍류 명소'로 명성이 자자했던 행원은 최근 젊은 감성을 입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올 7월 문을 연 카페는 테마별로 조성됐다. 기존의 식탁이었던 자리는 전시

학봉 성준숙 명창으로 주인 바뀌면서 한정식 집으로 변모 7월 젊은 감성 입혀 카페로 문 열어

공간으로, 또 주방으로 쓰였던 곳은 담소 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판소리공연과 강연이 펼쳐지는 '낙원권번'. 행원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1928년 당시 환경과 역사, 생활상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낙원권번 건물을 복원했다. 목조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살린 내부에는 천정의 목재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곳에는 판소리를 비롯해 무용, 기악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마련돼 있다. 판소리 명창을 비롯해 각 부문 공연과 함께 무대에 섰던 계승자들이 관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일강연도 펼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21일 공개 실연예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조직위원장 김한)는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소리프론티어 공개 실연예선을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 플랫폼창동 61 레드박스에서 진행한다.



'소리프론티어'는 실력 있는 한국형 월드뮤직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실제적인 혜택 마련과 지원이 주어지는 소리축제 대표 프로그램. 이날 무대에는 1차 서류 및 음원 심사 판관을 통과한 7개 팀이 올라 치열한 접전을 치른다. 진윤경 실크로드 앙상블, 조영덕 트리오, 창작음악앙상블 분, 심심한 명태, 악단광칠, 이나래, 김나리(접수번호 순, 팀 소개 별첨)의 무대를 팀레이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실연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 팀으로 선정된 세 팀은 소리축제 기간 중 진행되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KB소리상, 수림문화상, 프론티어상 등 총 1천 8백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비롯해 2018 프랑스 바젤메드뮤지 소제이스 참가, 2018 말레이시아 레인포레스트 월드뮤지 페스티벌, 2018 타이완 국립전통예술진흥공사 공연 참가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예선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다섬유 소포장재, '핸드메이드코리아' 서 전시

한국전통문화재단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다섬유로 만든 친환경 소포장재와 그 농식품 범용 포장 디자인을 오는 20일 삼성코엑스 C홀에서 진행되는 '제8회 핸드메이드코리아'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8회 핸드메이드코리아'는 아트, 공예, 취미, 리빙 등 각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손으로 만든 창작 작업 위주의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전문 전시회다. 이번 전시에 선보일 농식품 범용 포장디자인은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신선농식품 포장 기능성 강화를 위한 다섬유 친환경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번 다섬유 친환경 소포장재의 개발은 다섬유가 단순히 한지제작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지의 우수한 기능성과 활용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또한 다섬유 친환경 소포장재는 기존 농식품 포장디자인의 일괄적인 포장법에서 소포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개선시킨 제품으로,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이고자 했다. 오태수 원장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포장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기존 포장방식에서 쉽게 응용이 가능하면서도 경제성과 사용편의성을 살린 범용 포장디자인이 여러 분야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작품 '삼학동'



박정경 작가



한정무 작가



작품 '관계'

도립미술관, 하반기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선정 서양화가 박정경·조각가 한정무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2017 하반기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로 박정경, 한정무 미술가를 선정했다. 박정경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2017 밤의 숲(신한갤러리 광화문), 2016 밤의 숲(이공갤러리), 2016 drawing 시간들(우진문화공간), 2017~2016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에서 개인 및 레지던시 등을 가진 바 있다. 한정무 작가는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한국미술협회전북지회 조각분과 이사, (사)한국조각

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 제64회 우진청년작가초대전 2017한정무개인전(우진문화공간)과 2016 한정무전 호흡(갤러리숨)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2005 제37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 미술가를 비롯해 내부추천으로 입주가 결정된 김원 미술가는 오는 8월부터 6개월간 함께 체류하면서 창작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내부추천으로 구성된 해외 미술가 5명(중국 2명, 대만 1명, 인도네시아 2명)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짧게

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내로 각각 체류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이견용(군산대 명예교수), 이상조(전북대 교수), 이재승(예원예술대 교수), 강신동(전북미협 지회장), 박혜경(서신갤러리 대표), 장석원(전북도립미술관장), 이문수(학예연구팀장) 심사위원단은 "작가들의 예술관, 경력 작품의 성취도가 창작스튜디오의 설립 취지와 부합되는 지에 대해 평가하고, 박정경·한정무 미술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